
유럽 항공기내 3G/4G 모바일 이용 허용

2014.01.08.

□ 개요

- EC(European Commission, 유럽연합집행위원회)는 고도 3,000미터 이상에서 항공기내 3G/4G 모바일 기기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 ('13.11.22)

□ 주요내용

- 항공기내 3G/4G 모바일 기기 사용 허용 결정에 따라 ECC에서는 2.1 GHz와 1.8 GHz 대역에 대한 사용 협의를 시작함
 - ※ECC(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, 전기통신위원회)
 - ※유럽에서는 그간 2G만 이용 가능하였으나(음성 포함)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광대역 메시지 및 데이터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게 됨
- 이는 EASA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승객의 모바일기기 사용을 허용하지만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지시를 따를 것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며, 관련 EC의 결정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규제당국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
 - ※ EASA(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, 유럽항공안전국)
- 미국은 FAA의 결정에 따라 FCC도 휴대용 전자기기의 기내 사용과 관련하여 음성통화에 대한 부분의 재검토를 하고 있음
 - ※ FAA(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, 미국 연방항공국)
- 아시아의 경우 지난 AWG-15('13.8) 회의에서 'Direct Air-to-Ground Wireless Communication'에 대한 기고서를 일본이 제출하여 관련 요구사항과 연구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설문을 아태지역 국가에 회람하기로 함
- ITU에서도 DA2GC(Direct Air-to-Ground Communication)를 위한 항공기와

공중 이동통신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 제정(2013.11월, WP5A)

- 항공기와 공중 이동통신을 위한 일반 원칙, 기술적 특성 및 지상 시스템의 작동 기능에 대한 지역별 시뮬레이션 결과 및 표준 현황
 - ※ 주파수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럽(5GHz 대역), 미국 및 캐나다(800 MHz 대역), 중국(1.7 GHz 대역), 일본(40 GHz 대역)에서의 특정 대역을 사용하여 진행

□ 향후전망

- 기내에서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었고 이번 미국과 유럽의 항공국 결정에 따라 국가 그리고 항공사별로 기내 광대역 서비스 및 음성 통화에 허용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
- 우리나라도 국내 항공사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자파와 운항 항공기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지침 마련 필요
 - ※ 국토부에서 이착륙 시 모바일 기기 이용을 허용(음성 제외)하는 이행지침 마련 예정임 (2013.12월)
 - ※ 이행지침 마련 시에는 비행기에 향상된 MCA(Mobile Communication on-board aircraft)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는 사항 고려 필요

▷ 본 자료의 게시처 : TTA 홈페이지 > 자료미당 > TTA간행물 > 표준화이슈 및 해외 동향